



# 전국 사랑이 이야기

전북대학교



E00847729

전주시립도서관

Jeonju Municipal Library



## 전주사랑이야기

- 발 행 인 : 전주시립도서관장 유 금 호
- 발 행 처 : 전주시립도서관
- 발 행 일 : 2010. 6. 18.
- 연 락 처 : 560-140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 4길 12(동완산동 464-1)  
TEL.(063)287-6417 FAX.(063)230-1828
- 홈페이지 : <http://lib.jeonju.go.kr>
- 인 쇄 처 : 대광출판사 TEL.(063)224-5469

〈비매품〉

# 목차

C · O · N · T · E · N · T · S

- |    |     |                 |    |     |                  |
|----|-----|-----------------|----|-----|------------------|
| 2  | 고두영 | 루갈다산의 햇살        | 33 | 박석구 | 전주팔경-5. 덕진채련     |
| 3  | 구순자 | 전주 막걸리          | 34 | 박석구 | 전주팔경-6. 위봉폭포     |
| 4  | 김경녀 | 오색 감칠맛으로        | 35 | 박석구 | 전주팔경-7. 동포귀범     |
| 5  | 김계식 | 한 바탕의 으뜸뿌리      | 36 | 박석구 | 전주팔경-8. 비비낙안     |
| 7  | 김병학 | 선택 받은 땅         | 37 | 박영학 | 다가공원 가는 길        |
| 8  | 김수화 | 승암산을 찾아서        | 38 | 배학기 | 마중물 사랑           |
| 9  | 김영곤 | 덕진공원            | 39 | 백순기 | 옛 철길 추억따라 전주역 간다 |
| 10 | 김완철 | 모래내 시장에서-조군에게   | 40 | 서상옥 | 천변아침             |
| 11 | 김용관 | 전주 천변의 스승       | 41 | 선종삼 | 고혼에 행구고          |
| 12 | 김용주 | 전주와 살다          | 42 | 손경섭 | 완산의 애가           |
| 13 | 김 원 | 하이얀 미소          | 43 | 손경섭 | 추억에 연가           |
| 14 | 김은숙 | 어느 봄 날          | 44 | 손경섭 | 탄식               |
| 15 | 김인규 | 강암서예관           | 45 | 손경조 | 독막선              |
| 17 | 김자향 | 겨울 전주천          | 46 | 손경조 | 살다보면             |
| 18 | 김종선 | 객사              | 47 | 손경조 | 가진것 너 하나         |
| 19 | 나인구 | 은행나무-전주 한옥 마을에서 | 48 | 송가옥 | 전주의 연정           |
| 20 | 나인구 | 노을              | 50 | 송반달 | 물론               |
| 21 | 대 우 | 전주에 가면          | 51 | 송하선 | 풍남수성가            |
| 22 | 대 우 | 그대 그리운 날        | 52 | 송하진 | 전주               |
| 23 | 대 우 | 사랑              | 53 | 송하진 | 전주비빔밥            |
| 24 | 박기태 | 전주천 소고          | 54 | 송하진 | 한옥마을 자전거         |
| 25 | 박남권 | 꽃물결 덕진공원        | 55 | 송희철 | 효자동 사람들          |
| 26 | 박부산 | 전주 한옥 마을        | 56 | 심옥남 | 아늑한 집            |
| 27 | 박부산 | 전주천             | 57 | 심재기 | 모악산 소곡           |
| 28 | 박석구 | 한벽루에 앉아         | 58 | 양점숙 | 그 길              |
| 29 | 박석구 | 전주팔경-1. 기린토월    | 59 | 엄영자 | 한벽당 그 곳에는        |
| 30 | 박석구 | 전주팔경-2. 동고모종    | 60 | 오연미 | 오월의 완산 시립도서관     |
| 31 | 박석구 | 전주팔경-3. 한벽청연    | 61 | 유현상 | 전주의 풍류 한벽당       |
| 32 | 박석구 | 전주팔경-4. 다가사후    | 62 | 이강로 | 느티 한 잎           |



- 63 이경아 가을 햇볕 짙짙한 날  
 64 이근풍 전주천  
 65 이남기 각시바위  
 66 이동희 연잎에 시를 쓰다  
 67 이동희 먼산  
 68 이동희 소리샘  
 69 이동희 밤벚꽃놀이  
 71 이동희 고랫등마을을 찾아서  
 72 이란우 골고다의 촛불  
 73 이방우 기린토월  
 74 이선화 한옥마을  
 75 이소애 섣다리  
 76 이소연 고향을 펼치다  
 77 이소연 덕진 연못 이야기  
 78 이시연 봄이 흐르는 호수  
 79 이시연 오월오월  
 80 이운룡 승암사 새벽 종소리  
 81 이운룡 완산칠봉  
 82 이운룡 남고산성  
 83 이위근 덕진 호  
 84 이희정 한옥마을의 추석  
 85 이희정 전주천에서  
 86 이희정 건지산  
 87 임우성 겨울 전주천  
 88 장태운 오목대에서  
 89 전병윤 태실  
 90 정군수 남고모종  
 91 정군수 용머리고개에는  
 92 정기환 한옥마을  
 93 정기환 그 하늘  
 94 정기환 아무래도 보고파서  
 95 정병렬 풍남문 종소리  
 96 정성수 중앙시장 떡골목  
 97 정순자 연꽃사랑  
 98 정순자 전주 한옥 마을  
 99 정훈 완산칠봉에서 내려다 본 내 사랑 전주  
 100 정희수 한벽당에서  
 101 조경옥 전주천을 흐르는 것은  
 102 조기호 휘영정 맑은 서기 달을 따다가  
 103 조영순 은행나무 가로수 되다  
 104 조채성 객줏집  
 105 주봉구 한벽청연  
 106 최근호 한벽당  
 107 최만산 나무와 나  
 108 최상섭 경기전 유감  
 110 최성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112 최종규 만경대 한 그루 늙은 소나무  
 114 하세호 나, 이곳에  
 115 하지연 한옥 마을을 찾아서  
 116 허소미 다가공원 부망비  
 117 허호석 기린봉의 달

# 수필

119	고삼곤	천년 왕도 전주의 삶	235	유기석	친구에게 띄우는 편지 -풍패지관에 관하여
122	곽병술	전주천의 달밤	238	윤석조	전주천의 이른 봄
126	권중대	햄빌당 오무가리	241	이 의	인연
130	김 학	노송동, 그 추억의 행복창고	244	이기화	전주사랑 이야기
136	김기경	남성 금지구역	250	이봉석	어떤 식당
140	김길남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보물	252	이상우	오목대의 그때 그 함성
143	김세명	노인과 건강식품	256	이여산	여울목 쉼 다리에서
147	김여화	전주역 지붕의 골기와	259	이연희	췌, 꽃이 피고 있어요
151	김영옥	제2의 고향 전주	263	이용미	나의 살던 고향은
155	김용재	모악산에 올라	266	이윤상	전주천의 사계
158	김윤호	막걸리처럼 훈훈한 전주 인심	269	이정숙	건지산 둘레길을 걷다
162	김은실	콩나물 국밥을 먹으며	275	이종승	전원의 도시
166	김인규	강암 송성용 선생님	280	이현애	도라지꽃-완산칠봉
169	김정길	풍요의 상징 전주 황방산	282	이혜숙	전주 향교
173	김춘자	경기전 트랙에서	285	이희근	화산공원 탐방
179	김한하	전주사는 즐거움	291	이희석	사랑받는 도시 전주
182	목경희	한벽당	294	전주웅	전주 달팽이의 하루
186	박귀덕	꽃달임	298	정군수	경기전 노매
192	박영희	자랑스런 나의 삶터 '전주여'	301	정장영	경기전에 어진이 돌아오던 날
197	박종윤	전주 삼천의 역사	306	조윤수	역사의 향기, 전주 경기전에서
200	백송룡	콩나물과 비빔밥	311	조윤수	온고을, 은행나무골
204	서상옥	여울목 쉼다리	316	조윤수	노송천을 부탁해
207	서상옥	전주에는 얼굴없는 천사가 산다	321	진원종	호주머니 속의 행복
213	소영자	빨래터	323	최 윤	그 여자네 집
217	소재호	모악산 이야기	327	최준강	풍납동 은행나무의 소원
219	신기정	전주 음식의 맛과 멋	330	최화경	설레임의 도시 전주
223	신진탁	다시 걷고 싶은 은행나무 길	334	한무웅	온고을 유정
227	안 도	전주 남천표모 이야기	338	한일신	내 고향 전주
232	양봉선	봄맛이 풍경			



5월

342 경민창 전주천에서 혜세를 읽다

346 홍석영 생전 처음에 접한 도시

349 황점복 전주 공나물 해장국

354 회원주스톡

## 전주 막걸리

구순자 시

저마다  
살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 놓는

잔과 잔을 마주 대하며  
내설움, 내설움  
항아리 속의 김치 꺼내듯  
꺼내 놓는다

사랑 이야기 오가기도 전에  
친구의 얼굴이  
금세 붉다

때로는  
첫사랑 이야기가 피었다 지고  
상처 입고 살아온 세월이 피었다 지고

어느새  
이야기 속에  
만취한 주전자  
혀가 꼬부라지고 갈지자가 된다.

## 전주 비빔밥

시  
송 하 진

전주에 한 번 와 보시게  
올 때는 설레는 가슴 꼬옥 보듬고 오시게  
우리네 살았던 그 시절의 맛, 예서 느껴 보시게  
절구질로 쌀 한 되, 소머리 고아낸 물 아시기나 하는가  
아삭이는 콩나물이며 오방빛깔 가지가지 나물들  
산과 들이 함께 담겨 있다네  
모두 모두 함께 하니 골동반(汨董飯)이라  
누구는 화반(花飯)이라 했다지  
정히 앉아 한바탕 비벼보세  
비비고 비비니 즐겁지 않은가  
섞이고 섞이니 아름답지 않은가  
온 몸을 휘감는 맛  
세상살이 맛이 나지 않는가

이건 격조(格調)네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격조야



## 전주음식의 맛과 멋

신 기 정

수필

만일 전주를 떠난다면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일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느긋한 말씨에 걸맞은 넉넉한 인심 그리고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예술혼 등 모두가 놓치고 싶지 않은 유혹이다. 하지만 그중 맛깔스런 음식에 길들여진 혀의 고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자연주의에 근거한 참살이 음식으로 새롭게 조명 받는 전주음식의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전주음식에는 조화로움이 있다. 온갖 구이와, 회, 무침, 볶음, 탕으로 넘쳐나는 한정식과 다양한 야채와 양념들이 어우러진 비빔밥이 그 예이다. 배와 생강이 어우러진 이강주와 갖가지 한약재를 넣어 달인 모주까지 개별 재료와 음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창조해 낸다. 또 그릇

을 포괄 정도로 연이어 나오는 음식의 제공순서와 배열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다. 음식 외에도 태극선의 중심을 향한 삼색의 소용돌이와 사설과 창이 적절히 어우러진 판소리도 전주문화의 조화로움을 더해준다.

전주음식에는 보는 즐거움이 있다. 각 재료의 색을 살려 자연스럽게 배열하는 비빔밥, 구절판과 색색의 고명을 곁들인 전이나 떡이 그중 으뜸이다. 쉽게 접하는 반찬거리 하나에도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숨어 있다. 임산물이든 해산물이든 각각의 고유한 색감을 살리면서도 다른 재료와의 자연스런 어울림이 있어 전주음식에는 눈으로 먹는 맛이 더해진다.

전주음식에는 온전함이 있다. 닭 한 마리를 시켜도 타지에서는 포장마차용으로나 쓰이는 닭발까지 남김없이 준다. 미꾸라지나 잡고기를 통째로 끓여내는 추어탕과 오모가리탕, 밥도둑이라 일컫는 꽃게장 그리고 콩나물국밥 위에 얹어주는 동그란 계란 하나에도 온전히 내어주는 온고을의 인심이 담겨있다.

전주음식에는 담백함이 있다. 대부분 천연양념으로 조리하여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뒷맛을 자랑한다.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빛은 장류음식이 발달되어 인공조미료로 맛을 낼 이유가 없다. 또 풍성한 곡물과 해산물이 사시사철 넘쳐나니 굳이 염장하거나 말라비틀어진 재료들을



쓰지 않아도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별다른 타박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자연을 그대로 식탁에 옮겨놓은 까닭이다.

전주음식에는 넉넉함이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손님이 많은 식당은 음식 맛이 좋거나 양이 많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주에서는 맛은 기본이며 싸고 풍성해야만 한다. 막걸리 한 주전자에 딸려 나오는 맛깔스럽고 푸짐한 안주들은 외지인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부담 없이 챙겨 먹을 수 있는 덩과 향토색 짙은 갖가지 후식도 전주음식의 또 다른 여유이다.

흔해진 ‘○○방송 출연’ 광고판 하나 없더라도 나름의 맛이 있는 식당을 찾아보는 것도 전주생활의 쓸쓸한 재미이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전주음식 애호가였던 어떤 친구는 아직도 여행 중에는 간판에 ‘전주’가 들어간 식당을 찾는다고 한다. 주변 식당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그 방법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다. 조심할 것은 ‘진주’를 ‘전주’로 잘못 보고 들어가는 것이란다. 사랑하던 ‘님’도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도로 ‘남’이 되듯이 음식점도 점 하나 차이에 즐거워야할 식사가 ‘의무방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콩나물국밥에 향긋한 모주 한 잔만 곁들여도 지인들과 살가운 정을 나누기엔 부족함이 없는 전주음식의 맛과 멋! 최소한 전주에 있는 동안은 눈 덮인 산정에서 끓어서 얼어 죽

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보다는 진미를 찾아 헤매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로 살아가고 싶다.



## 어떤 식당

이 봉 석

나는 전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고향이지만 이곳에 오는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곳 전주에 볼일이 생겨 오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상당시간 일을 보고나니 저녁때가 되어서 저녁을 여기서 먹기로 하고, 식당을 찾다 어느 허름한 식당으로가 삼겹살을 조금시켰다. 조금 있으니 주인께서 쟁반에 고기와 반찬 몇 가지를 가져와 불을 켜고 드시라고 하고는 부엌 쪽으로 가셨다. 아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게 뭐야 내게 물었지만 나도 전주에서 밥 사먹는 일이 처음이라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다. 찬이라고는 김치 조금과 마늘 고추 몇 알 뿐이었다. 주인은 부엌이 조금 떨어진 곳이라 봐지도 않고 내가 식당을 잘못 찾아 왔나 싶었다. 하지만 어찌 하겠는가 고기는 벌써 익어 가는데 우리는 배가 몹시 고프지라 그냥 먹고 있었다.

한참 먹고 있으니 주인께서 늦어서 죄송해요 하면서 커다란 쟁반을 들고 오셔서 수많은 반찬을 우리 상에 놓으셨다. 그 큰상에 가득 놓고도 상이 모자라서 찬그릇을 포개어 놓기 까지 하였다. 거기에는 대여섯 가지 회 꺼리도 있으니 아내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우리 회는 안 시켰는데요 하니. 주인양반은 미소를 지으시며 회 값은 안받을 태니 걱정 말고 드셔요 하셨다. 아내는 동그란 얼굴로 이것저것 먹어 보면서 맛있네를 연발하였다. 배부르게 먹고 값을 치르니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여러 곳에서 밥을 먹어보지만 전주에서 만큼 맛깔스런 반찬을 주는 곳을 아직 보지 못했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



## 전주 ‘콩나물 해장국’

황 점 복

수필

호남평야의 중심인 전주는 재력이 든든한 중인이 많았고, 동학혁명의 영양도 크고 해서 조선 후기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허물어진 곳이기도 하다.

눈을 감고 ‘전주’ 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주의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에는 전주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보물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

그중에서 한옥마을에 위치해 있는 ‘학인당’ 이다.

학인당(學忍堂)은 원래 99칸의 큰집이었으나, 지금은 본채와 뒤채만 남아있다.

본채는 방과 방 사이를 트고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100여명이 함께 앉아 강의나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곳을 찾았다.  
때마침 판소리계에서 이름난 선생님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는 날이었으니 우리에게 일석이조의 소득이 있는 날이었다. 그날 국악계 선생님들이 오셔서 고전인 심청전과 흥부놀부 전등을 구성지고도 감칠맛 나게 들려주셔서 재미난 판소리를 감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판소리에 대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근동만 가게 되면, 아직도 구성진 한가락의 판소리가 들리는 듯 하여서 입가에 미소가 띄워지며 한껏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한다.

그 뿐인가?

봄에는 경기전 뒷담의 은행잎이 연두빛으로 싹을 틔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삶에 희망을 품게 되고, 가을에는 노오란 황금빛으로 물들어있는 은행잎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을바람이 부는 날은 날리는 낙엽이 나비처럼 보여져서 한 편의 시가 저절로 나올 정도이며 쌓이는 잎 새가 아름답다 못해 슬프기까지 한다.

전주는 옛 부터 다양한 민속과 전통문화가 특징이랄 수 있지만 난, 의 · 식 · 주를 먼저 생각한다. 그중에서 밥(食)은



필수 가결한 것이다.

때문에 음식하면 전라북도 전주의 비빔밥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라면 손꼽을 정도로 맛과 멋을 자랑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난, 콩나물국밥을 제일로 꼽고 싶은 까닭은 10여년 전 직장에서 새벽비상이 걸리는 날엔 직원들이 아침밥 대신 콩나물국밥집인 웅이 집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때마다 따라가서 먹게 되었는데, 직원들은 콩나물 국밥을 먹게 되면 속이 시원하게 풀어진다는 감탄을 연발했고, 난 콩나물 국밥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만 먹는 밥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다.

콩나물 국밥은 콩으로 길러서 만든 식품이기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만들었기에 영양도 풍부하다.

특히, 추운 겨울날 먹었기에 더 진한 맛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 식품에 대한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던 까닭은 미각을 돋우기에 일품이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

그 뒤, 한동안 그 음식을 접 할일이 없었는데 교회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교인들과 함께 그곳을 들리게 되

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음식 맛은 변함이 없었으니 변한 것은 나 자신뿐이지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남편과 함께 남부시장 골목 안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에 들리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갑게 보이지 않는 국밥이지만, 계란 중탕에 해장국 국물을 몇 숟가락 넣고, 김 가루를 뿌린 뒤, 휘휘저어 반찬으로 나온 구운 김을 해장국에 더 얹어 넣고, 다진 고추로 맵기를 조절하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췄다.

뚝배기에 담겨 나온 해장국에 오징어와 콩나물을 총총 썬 김치 등이 들어있다.

“혹시 했지만 역시나” 였다.

세월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우리전주의 인심과 음식 맛은 변함없이 맛과 멋을 자랑하기에 충분했다.

콩나물 국밥은, 멋과 맛. 전주, 한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도 함께하는 음식 맛이 아닐까?

콩나물 국밥을 좋아하는 까닭은 농경사회였던 우리네들의 인심과 따듯한 정이 배어있는 듯하며 내 고향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더불어, 전주시의 로고가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라는 글귀인데 꼭 음식에 대한 자랑을 하는데 어울림일 듯  
싶게 마음에 와 닿는다.

세계 속에 전주 ” 멋과 맛” 을 전주의 콩나물 국밥으로 내  
놓는다면 어떨지??

무더운 여름날 아니, 입맛을 잃었을 때 뚝배기에서 김이 모  
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이 최고인, 콩나  
물국밥으로 심신을 달래 보는 일도 전주를 사랑하는데 한  
몫을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맛과 멋이 깃들인 전주의 “ 콩나물 해장국” 을 그 어떤  
음식이 감히 넘보지 못하리라.